



한학문화

사옥이전과 함께 '웅비 2007' 다짐



인쇄·출판 전문회사인 한학문화(대표 백국인, www.hanhak.co.kr)는 지난 1월 26일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에 위치한 신사옥에서 확장이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마스터 인쇄부터 실사출력까지 무엇이든 'OK'

한학문화가 새롭게 자리잡은 건물은 총 건평 120평에 4층 규모로 1층은 복사 및 출력실로, 2층은 디자인실 및 영업부실로 사용되며, 3~4층에서는 인쇄 및 제책을 담당한다. 각각의 작업실 특성에 맞춰 필요한 장비들도 완벽하게 갖춰놓은 상태다.

먼저 인쇄 및 제책기로는 RYOBI 3200 양면기 1대, 하마다 612XL 1대, 호리즌 무선기 등 무선제책기 2대, 와키스 정합기, 에레팍스 AP10 제판기, 대호 720 재단기 등 마스터 인쇄와 관련시설 일체가 구비되어 있으며, 출력장비로는 HP 5500 실사출력기, 제록스 DCC 360 등 컬러출력기 3대, 코니카 7085 등 디지털 복합기 7대가 설치되어 있다. 이밖에 파워 맥을 비롯한 편집용 컴퓨터 7대, HP 디자인젯30N 프린터 5대 등의 디자인 장비도 골고루 마련되어 있다.

백국인 대표는 “실사출력기를 비롯한 장비를 보강하고 시설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며, 거래처 다변화와 신규 물량 수주확보에 힘쓸 것”이라며 “기획 디자인 부문에 우수한 인재를 영입함으로써 차별화된 제품 생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학문화는 어떤 회사

한학문화는 1991년 3월에 창립됐다. 그동안 축적해 온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주로 정부, 산하기관, 지자체, 대학 등 관공서를 주 고객으로 하고 있으며, 정기간행물, 홍보물, 보고서 등 각종 인쇄물을 납품하고 있다. 우수한 기획력과 철저한 납기 엄수는 한학문화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다.

하지만 한학문화를 그저 평범한 인쇄사로만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산업보건서비스 등을 비롯한 보건의학분야와 무용교육총서 시리즈 및 르네상스 대위 등 예술 및 의학분야의 전공도서 50여종을 출판할 정도로 명실상부한 중견 출판사이기도 하다.

특히 2003년부터는 자회사인 한애드를 설립, 월간 마이더스, 재외동포 소식지를 비롯한 정기간행물 제작은 물론 정치홍보대행, 산업디자인, 기업판촉물, 신문, 잡지 광고제작 분야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사업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사업 성장의 비결에 대해 백국인 대표는 “가격이 아닌 제품의 질과 신용을 바탕으로 승부한 것일 뿐 특별한 비결은 없다”면서도 “조달단가를 기초로 대금을 청구하며 덤핑은 용납하지 않을 것, 명절이나 휴일에 관계없이 납기는 철저하게 지킬 것, 고객이 최종적으로 승인한 교정지라 할지라도 전문가 입장에서 재검토 하는 과정을 거쳐 오류를 예방하자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 온 것이 큰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

잠깐! 백국인 대표는 누구

백국인 한학문화 대표는 서대문 지역에서 알아주는 마당발이다. 그도 그럴 것이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굵은 일을 마다하지 않기 때문. 현재 한학문화 대표이사 외에도 그가 가지고 있는 직함은 두 개가 더 있다. 서대문구상공회 부회장과 지역경제발전위원회 위원장이 그것. 서대문구상공회는 대한상공회의소 산하단체로 2500여 사업주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서울시 25개 구 상공회 중 중구 상공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제단체이기도 하다.

지역경제발전위원회는 지난 2005년 '관내기업물품 우선 구매 제도' 시행과 더불어 설립된 곳으로 백대표는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그동안 서대문구와 산하 기관에 약 60여 업체를 납품 적격업체로 추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와 더불어 복지사업으로 저소득 주민들에게 무료로 생필품 지원을 위해 매년 1200만원씩을 지원하는 한편,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선정해서 총 600만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 사회복지의 날에는 그를 비롯한 6명의 위원들이 서대문구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